

이 란 (Islamic Republic of Iran)

1. 경제동향

(단위 : 억 달러)

구 분	1997	1998	1999	2000	2001
GDP성장률(%)	2.7	3.7	3.1	6.1	5.1
재정수지/GDP(%)	-1.0	-5.3	-0.2	-1.0	-1.1
수 출	183.8	131.2	210.3	283.4	240.6
수 입	-141.2	-142.8	-134.3	-152.1	-174.8
경 상 수 지	22.1	-21.4	65.9	126.4	56.6
대외채무(연말)	118.0	140.0	104.0	87.0	82.0
외 환 보 유 액	50.1	34.4	56.5	65.8	83.3
D. S. R. (%)	31.3	20.3	20.5	10.3	9.6

주) 각 회계연도는 당해년 3월 21일부터 다음해 3월 20일 까지

자료 : EIU Viewswire, 2002. 6

가. 국내경제

- 석유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.4%(FY2000)로서 총 외환 수입의 80%, 재정수입의 50% 이상이 석유수출에 기인
- 2001 회계연도중 경제성장률은 전년(6.1%)보다 낮은 5.1% 기록
 - 고유가에 힘입어 2000년중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, OPEC의 엄격한 산유량 제한, 가뭄지속 등의 영향으로 2001년중 성장률 하락
 - 이란의 산유량은 2002년 1분기중 일평균 338만 배럴 수준
 - ※ OPEC 쿼타 318만 배럴/일(2002.1월 결정)
 - 국제유가는 미국경제 및 세계경기 회복지연에도 불구하고, OPEC의 감산정책 유지, 중동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
- 제3차 경제개발계획(2001-04)을 통해 이란 정부는 금융 및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정부규제 완화, 비석유산업 지원강화, 대외개방 등 경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

나. 대외거래

- 2001년 중 석유수출액이 193억 달러로 전년(242억 달러)대비 20.1% 감소하여, 경상수지 흑자도 126억 달러에서 53억 달러로 크게 감소
 - 원유 생산량 감소 및 유가하락으로 수출액이 16% 감소하고 수입규제 완화로 수입액이 19% 증가하였기 때문

- 주요 수출국으로는 일본, 이태리, UAE, 프랑스 등이며 원유·가스가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
 - 주요 수입국은 독일, 일본, 이태리, UAE 등이며 운송, 기계설비, 화학제품 등을 주로 수입

- 외환보유액은 '98년 34억 달러까지 떨어진 후, '99년이후 점차 증가세를 보여 2001년에는 83억 달러까지 증가
 - '98년 140억 달러에 달했던 외채규모가 지속적인 외채상환 노력으로 2002년말 78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

- 2000년 말 36.8억 달러 수준이던 단기채무도 2001년 말 29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고, 채권발행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 등으로 충분한 대외지급능력 유지 전망

다. 주요지표 전망

구 분	2000(실적)	2001	2002	2003
GDP성장률(%)	6.1	5.1	5.0	5.5
석유생산량(천b/d)	3,808	3,582	3,514	3,850
석유수출대금(억달러)	242.2	193.4	179.3	191.5
소비자물가상승률	14.5	11.3	17.3	15.5
외채잔액(억달러)	87	82	82	85

자료 : EIU Viewswire, 2002. 6

2. 정치·사회 동향 및 국제관계

가. 정치·사회 동향

- 2000년 2월 총선과 이듬해 6월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하타미 정권은 민심을 등에 업고 정치 및 경제개혁에 기치를 높이 들었으나, 보수파의 견제에 밀려 점차 개혁정책 추진이 약화되는 양상
 - 국민들은 느슨한 개혁추진과 높은 실업률(16-25%로 추정)로 불만이 고조
 - 공공부문, 특히 350여 개의 국영기업(SOEs)의 개혁이 지지부진
- 하타미 대통령과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와 헌법수호위원회(Guardian Council), 군부, 이슬람 종교단체 중심의 보수파간의 구조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·사회 안정의 열쇠

나. 국제관계

- 올해 초 부시 대통령의 '악의 축'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관계는 당분간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보임
 - 미국의 이란·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법(ILSA)은 2001년 8월, 5년 간 연장되었으며 2003년에 존속 여부를 재검토
- 이란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미국이 비난함으로써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란을 공격목표로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,
 - 유럽과 중동지역의 우방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임

다. 대외신용도

- '79년 이슬람혁명 후 최초로 2002년 7월 5년 만기의 5억유로 유로본드 발행에 성공
 - 이란과의 거래증진을 고려하여 인수신청액이 발행액을 1억 2,500만 유로 초과
 - 중동(53%) 및 유럽지역(42%) 투자자들이 주로 참여
 - 영국의 Fitch社가 2002년 5월 B+ 등급 부여
 - 금년 중 이번 발행액보다 적은 금액의 유로본드 추가발행 예정
- SG, HSBC 등 유럽계 은행을 중심으로 이란에 적극적으로 Credit Line을 제공하고 있는 등 대외 신용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
- 국가신용등급

구 분	Moody's	Euromoney	ICRG	I.I.	OECD(2001.7)
등 급	-	80/185('01.9) 76/185('02.3)	72/140('01.5) 74/140('02.4)	79/145('01.9) 77/151('02.3)	4등급 (총7등급)

* ICRG : Int'l Country Risk Guide, I.I. : Institutional Investor

3. 미국의 이란 공격가능성 검토

가. 미국의 이란 공격설의 배경

- 이란은 이스라엘 생존에 대한 잠재 위협
 - 이란의 對이스라엘 강경 자세와 對이스라엘 테러단체인 레바논 Hizballah 지원
 - 이란의 핵발전 확충 노력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경우 중동지역의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인 이스라엘의 전쟁 억지력 약화
 - * 이라크의 모술 핵발전소는 건설중 이스라엘 공습으로 파괴
- 이란은 미국의 중동정책 및 에너지 확보에 잠재 위협

- 세계 석유생산량의 31%, 천연가스 생산량의 8.7%(2000년)를 차지하는 페르시아만 지역에 비교적 큰 국가로서 교조적 이슬람주의 정권은 위협적인 존재

나. 미국의 이란 공격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

- Washington Post (7/29) : 미국과 이스라엘이 부쉐르(Bushehr)에 건설중인 이란의 핵발전소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
- Reuters (7/30) : 미 국무성 대변인은 이를 매우 가상적인 추측이라고 부인
- Washington Times (7/31) : 미 국방장관은 이란 체제가 언젠가는 이란 국민에 의해서 민주체제로 바뀔 것이며, 미국이 계획중인 對이라크 공격을 이란의 체제 전복을 위하여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

다. 언론 보도에 대한 이란의 반응

- 모하마드 알리 압타히 부통령은 정치적, 외교적 수단으로 미국의 공격을 예방할 것을 표명
- 이란 합참의장은 군이 외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

라. 이란 공격 가능성 평가 : 공격가능성 희박

- 미국의 전면적인 이란 공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
 - 핵무기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인 이란의 핵발전소 건설을 파괴한다는 명분이 없음
- 부분적이고 간접적인 공격 가능성도 매우 낮음
 - 명분은 없지만 건설 중인 핵발전 시설을 페르시아만의 미국 함대에서 간접 공격할 수는 있을 것임

- 이란의 개혁 또는 민주화 바람이 점진적으로 이란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핵무기 개발이 공공연하게 추진되지 않는 한, 미국의 이란 핵발전시설에 대한 공격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